

유럽 발전요인은 우유 소화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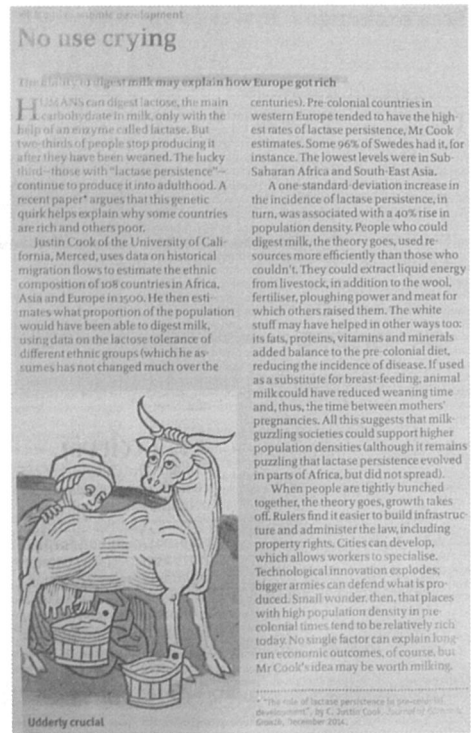
세계적인 경제저널 “이코노미스트”에 우유가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류의 1/3만이 젖을 땀 이후에도 유당분해효소(락타아제, lactase) 분비가 지속되고, 나머지 2/3는 줄어드는데 이러한 유전적 차이가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결정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대학의 저스틴 쿡은 1500년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비롯 108개국의 민족구성을 연구하기 위해 인구가동흐름을 살펴봤다. 다음으로 인종별 유당내성(lactose tolerance)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인구비율을 조사했는데, 식민지 이전시대 서유럽국가에서 유당분해효소 분비율이 가장 높음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가축의 젖을 섭취한 것 외에도 가축을 다양하게 활용(고기, 털, 비료, 경작)할 줄 알았으며, 우유 안에 있는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식이균형과 질병발생률 감소에 도움을 줬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우유를 많이 마신 사회가 더 높은 인구밀도를 가질



'The Economist' 2015년 3월 28일자 전문

수 있게 됐으며,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사회의 성장요소를 우유섭취라는 한 가지로만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저스틴 쿡의 연구결과는 근거 없는 안티밀크 정서 확산으로 소비가 침체된 우리우유의 가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